



## 미국의 납추 공방 사례



# '납 사용 금지' 요구한 환경단체들의 청원에 대해 미 환경보호국 "납에 의한 환경오염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" 기각

이 글은 미국스포츠낚시협회(American Sportfishing Association)가 지난 2월 14일 환경단체들의 납 금지 청원(Lead Ban Petition)을 기각한 미 환경보호국(EPA)의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발표한 성명서다. 환경단체들의 두 차례 청원에도 불구하고 "납에 의한 환경오염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"는 결론을 내린 미국 정부의 태도가 지금의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기에 소개한다.

미 스포츠낚시협회는 모든 낚시장비에서 전면적 납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청원을 기각한 환경보호국과 환경보호국 행정국장 리사 잭슨(Lisa Jackson)의 2012년 2월 14일 결정을 지지한다. 생물다양성센터와 다른 두 단체가 함께 2011년 11월 16일에 제출한 이 청원은 '유해물질통제법에 따라 미국 내의 모든 하천에서 낚시장비의 납 사용 조사를 시행할 것과 궁극적으로는 납 사용을 금지할 것'을 요구했다.

연방정부차원의 낚시용 납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이 청원은 일찍이 환경보호국이 2010년 11월에 같은 단체들의 유사한 청원을 기각한 후 두 번째로 제출된 것이다. 2010년 결정은 청원인들의 항소가 진행 중이다. 낚시장비의 전면적 납 사용 금지는 환경에는 미미한 혜택만 돌아가면서 레저활동으로 낚시를 즐기는 인구와 스포츠낚시 산업에는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.

이번 두 번째 청원을 기각하면서 환경보호국은 "청원인들이 제기한 위험이 유해물질통제법안의 6항에 따라 연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상당한 위험이라는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"고 언급했다. 환경보호국의 결정은 낚시장비의 납 사용이 물새의 개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입증하

는 여러 과학연구들과도 부합된다.

미국 스포츠낚시협회의 부회장인 고든 로버트슨(Gordon Robertson)은 "스포츠낚시 산업계는 환경보호국의 이번 청원 기각을 옹호 지지한다"고 말하며 "대대적인 금지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,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. 납 사용 전면 규제는 스포츠낚시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낚시를 즐기는 대중들에게 레저활동으로서의 낚시의 이미지와 비용을 변화시킬 것이다. 수천명의 낚시인들이 이 청원을 반대하는 글을 제출했고, 환경보호국이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어 기쁘다. 부당한 금지는 경계를 해치고, 전통적인 야외스포츠 참여를 감소시키게 만들 것이다"라고 말했다. 그리고 "환경보호국의 결정은 납 소재의 낚시장비가 물새 개체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준다"고 로버트슨은 덧붙였다.

**"전면적 납 사용 금지는 환경에는 미미한 혜택만 돌아가면서 레저활동으로 낚시를 즐기는 인구와 스포츠낚시산업에는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"**



“미국의 낚시인들은 원래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헌신적이다. 어업허가증 수수료와 낚시장비에 대한 연방소비세를 통해 낚시인들과 스포츠낚시 산업은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풍부한 어족자원이 보존되는 것을 돕는 기금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. 환경보호국은 이번 두 번째 청원을 기각함으로써 이 사실을 인정했다.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낚이 든 낚시장비를 금지하려는 부당한 시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 낚시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든 수단을 통해 레저 차원의 낚시를 막으려고 하고 있기에 우리는 스포츠낚시를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. 의회에 계류 중인 ‘수렵, 낚시, 레저 사격스포츠 보호 법안’은 이러한 부담스러운 청원들에 종지부를 찍고 소중한 여가활동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.”

이번에 청원된 낚 사용 금지에 대한 스포츠낚시계의 반대는 다음에 근거하고 있다.

제시된 자료는 연방차원의 낚 사용 금지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. 일반적으로, 아비새와 다른 물새종을 포함한 조류의 개체수는 해안선 개발, 폐기물, 다른 오염물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같은 더 실질적인 위협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. 낚시장비의 낚 성분 금지는 특정 수역 또는 특정 종들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.

연방차원의 낚 사용 금지는 레저로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과 어업자원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. 하지만 낚 사용 금지 주장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물새 개체수에 대해서는 미미한 영향만이 있을 것이다.

대안으로 사용되는 금속과 현재 일반적인 원자재 비용에 따라, 낚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낚시장비 제품들은 그 비용이 낚 성분 함유 제품의 9배에서 20배까지 달할 수 있다. 낚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은 또한 시장에서 구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을 수 있고, 대부분 성능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. 낚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낚시장비로의 의무적 전환은 낚시산업과 개별 낚시인들에게 모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.

낚이 물새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은 국지적인 문제로

서,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개체 수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각 주의 어류 및 야생동물관련 기구가 지역적 어업규제를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다.

미국의 6천만 낚시인들은 1백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450억 달러 이상의 소매판매를 발생시키고 있고 국가경제에 1,250억 달러에 달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. 

## 미 스포츠낚시협회는 어떤 단체인가

미 스포츠낚시협회는 스포츠낚시 산업의 산업협회로서 스포츠낚시계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.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이 스포츠낚시 산업 또는 스포츠낚시 자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전체 산업을 대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낸다. 협회는 미국에서 스포츠낚시의 지속적인 경제적, 환경보호적 가치를 보호, 제고하는 것뿐 아니라 스포츠낚시 산업이 굳건히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 벤처에 투자하고 있다.

### 외국의 낚추 규제 사례

## 새들이 주워먹지 못하게 소형 봉들만 규제 ‘낚이 물에 녹아 수질오염시킨다’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

**미국** 북동부의 몇몇 주에서 소형 낚 사용에 대해 일정부분 규제하고 있다. 큰 낚추나 루어까지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주는 미네소타가 유일하다. 뉴햄프셔와 메사추세츠는 1온스보다 작은 낚추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, 메인, 뉴욕은 1/2온스보다 작은 낚추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. 이유는 새들이 작은 낚추를 곡식 알갱이인 줄 알고 주워 먹기 때문이다.

캘리포니아에서는 2000년부터 낚이 포함된 낚시도구는 경고표지를 붙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지하지는 않는다.

**캐나다** 2cm보다 작거나 50g보다 작은 낚추나 낚시그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것도 국립공원과 국립야생생태지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다.

**영국** 조류 보호를 위하여 1온스보다 작은 낚추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.

**덴마크** 세계에서 유일하게 1996년부터 낚이 함유된 모든 상품의 판매 및 생산을 금지시킨 나라다. 덴마크에서 생산 판매되는 모든 제품엔 전체 무게의 0.01% 이상의 낚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여기엔 낚시도구뿐만 아니라 어업용 어구도 포함된다.